

초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 지원 서울권 국제中 지원자 역대 최대

5474명 지원… 전년대비 소폭증가
전국 4개 국제中 평균 경쟁률 17대1
대원 23.55대1로 전국 최고 기록

2026학년도 서울권 국제중학교 지원자가 2009년 개교 이래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등 6학년 10명 중 1명이 지원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 영어 중심 수업과 높은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는 총 5474명으로 지난해(5439명)보다 늘었다. 이는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6만1619명) 대비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울 학생 10명 중 1명이 국제중에 지원한 셈이다.

전국 4개 국제중학교의 평균 경쟁률은 17.43대1로, 대원국제중이 23.55대1로 전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부산국제중 22.39대1 ▲청심국제중 15.77대1 ▲영훈국제중 10.66대1 순이었다. 경남 선인국제중은 지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제중 경쟁률은 ▲2022

학년도 11.76대1 ▲2023학년도 14.03대1 ▲2024학년도 15.54대1 ▲2025학년도 17.91대1 ▲2026학년도 17.43대1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권 국제중 2개교의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3011명, 2022학년도 3242명, 2023학년도 4179명, 2024학년도 4596명, 2025학년도 5439명, 2026학년도 5474명으로, 개교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가 전년(6만8604명) 대비 6985명(10.2%) 감소했음에도 국제중 지원자는 오히려 늘었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과 높은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상위권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울권 국제중은 한국사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을 영어로 진행한다. 2024년 2월 졸업생 기준으로 대원국제중의 특목·자사고 합격률은 70.9%, 영훈국제중은 58.5%로 나타났다. 서울권 국제중은 단순 주입제로 선발되지만, 입학 후 수업 적응을 고려할 때 이미 상위권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나 유학 경

험이 있는 학생이 다수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권 초등학교 10명 중 1명이 국제중을 지원하는 현상은 교육열과 조기 경쟁 심화의 단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권 국제중 지원자 비율(8.9%)은 2028학년도부터 도입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에서 상위 10% 이내, 즉 1등급 인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중학교 단계부터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이사는 “대학 입시 경쟁은 고교 이후 본격화되지만, 서울권 국제중 지원 규모만 봐도 학력 수준의 격차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며 “상위권 학생 쏠림 현상이 교육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권 국제중 주입제는 오는 20일 실시된다. 청심국제중은 10월 30일 주입제를 완료하고 오는 15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산국제중(10월 24일)과 선인국제중(9월 26일)은 이미 전형을 마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서울시, 출산 신혼부부 최대 12년
청년은 월세 70만원→90만원 완화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한 신혼부부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릴 수 있고, 청년은 월세 기준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

인 부담)까지 이자를 지원받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로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홍보대사에 가수 김다현 위촉

파주시가 가수 김다현을 파주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다현 씨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다현 씨는 앞으로 2년간 파주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약 중인 김다현 씨는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로, 2019년 곡 ‘꽃처녀’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이자 국악인이다. 이후 엠비엔(MBN)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트롯’ 준우승, 티브이(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3위, 엠비엔(MBN) ‘현역가왕’ 3위 등을 차지하



(왼쪽부터)김경일 시장과 가수 김다현이 기념 촬영했다.

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악적 깊이와 대중성을 함께 갖춘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트로트 요정 김다현 씨가 파주시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교육청, 김금희 작가 초청 ‘정감산책’

오늘 정독도서관 노벨문학라운지서
정근식 교육감·시민 등 100여명 참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6일 ‘대운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를 초청해 정독도서관 내 노벨문학라운지에서 ‘2025년 제7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학 속 공간이 품은 시간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회복과 공감의 메시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북



‘대운실 수리보고서’의 저자 김금희 작가. /서울시교육청

콘서트로 진행된다.
정독도서관과 창경궁 대운실은 오랜

시간 서울의 역사와 시민의 일상 속에 자리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김금희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자신의 작품 ‘대운실 수리보고서’에 담긴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간이 지닌 기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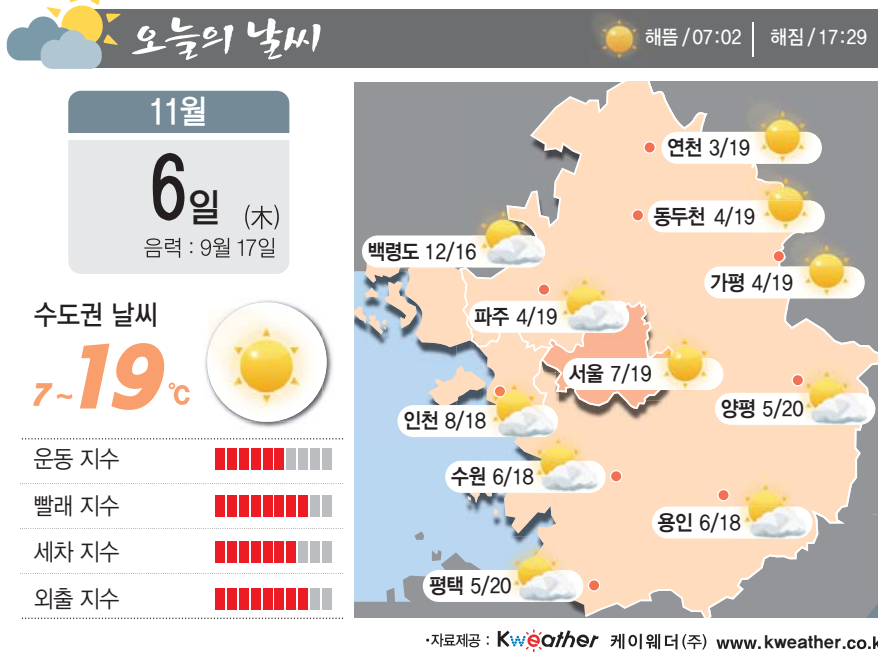
이어지는 정근식 교육감과의 대화에서는 문학이 교육과 사회에 전하는 의미, 그리고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주제로 교육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점점을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시민 등 100여명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은 사전 제출 질문과 현장 질의를 통해 작가와 교육감에게 직접 묻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감산책’은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시민소통 프로그램으로,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시민이 서울교육의 주체로서 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문학은 우리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하고, 교육은 그 경험을 함께 나누게 한다”라며 “정감산책이 시민과 함께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회복과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美 뉴욕 신임 시장에 민주당 맘다니…득표율 50.4% /사건 뉴시스
▲ 日 곰 피해 사망자 올해만 12명…피해 극심 지역에 자위대 투입

▲ 트럼프, 공화당에 섰다운 종료 위한 필리버스터 정면돌파 주문
▲ 中, 美 ‘펜타닐 관세’ 맞대응 중단…보복관세 해제·추가관세 유예

▲ 벨기에 브뤼셀 공항 정체불명 드론으로 폐쇄…‘러시아 도발’ 의심도
▲ 멕시코 마약 카르텔 폭력 격화…연일 대책 요구 시위